

세종시 자율주행 사업 '빛 좋은 개살구'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스마트시티 표방한 세종시, 자율주행 사업 상용화구간 현재 ‘1곳’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최민호 시장)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다. 이중 유료 상용구간은 대전~세종~오송간 1개뿐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사업 대부분은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자유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매칭)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5년간 시가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딱 두 번뿐이다. 도심공원(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종합청사(세종정부종합청사 순환) 2곳인데 현재는 도심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전무하다.

국토부와 세종시 공동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종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빈식역’이다.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구간은 위 3곳이 전부다. 나머지 한 곳은 오토노마스 기업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플랫폼 운영 사업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시청~국책연구단지’ 구간이다.

자율주행 등 실증 업무는 현재 세종시 경제 산업국(국장: 남궁호)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등 총 92억 원이 투입됐고, 시비는 20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 시기 직접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을 주도했거나 성장시킨 사례는 사실상 찾기 힘들다. 세종시가 5년간 20억을 투입해 얻은 결과물도 의문 투성이다.

자율주행 기업 유치나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노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제 ▲자율주행 관련 탈 세종 기업 현황 ▲실증 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 ▲기 테스트 구간 자율주행차 운영 및 도입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는 거부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적이 31개라는 한 줄 자료만 회에 전달했다.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오토노마스(2곳)와 언맨드솔루션, 포디부닷 3개 기업으로 오토노마스 본사는 경북 경산, 언맨드솔루션(중소기업)·포디부닷(현대차 자회사)은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순열 의장은 “상용화 테스트 중인 BRT 구간(A2, A3) 노선을 제외하면 자율주행 차를 찾기 힘들다”라며 “무려 5년 가까이 12개 구간을 면밀히 선정해 실증까지 했지만 상용화 실증 구간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장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참여한 기업마저 세종을

떠나지 않느냐”며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 기업 유치에 소극적이고, 지원과 투자는 물론 축적된 테이터 조차 활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게 더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국가 사업에 편승할 뿐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육성 계획이 없어 아쉽고, 타 시·도는 세종보다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앞서가는 상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성과나 열매가 부실한 소위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피하려면 기 테스트 구간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22년 상반기 이전 지정된 14곳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세종은 C등급(충북·세종과 E등급 세종)을 받아 저조했다.

타 시도 중 서울시는 최초 야간 자율버스를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켜 실증 중이고 경복궁·청와대·여의도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율주행 노선 추가 확대도 최근 발표했다.

부산시는 물류 화물 등 해상택시와 화물운송 실증 중이며, 학성시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 협상도시로 선정돼 총 740억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요 응답 미니 서틀,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베텔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당진시청 고위공직자 A씨 충남도감사위 결정에 불복

경찰수사 진행 중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의 강행에 이의 제기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계의 결의구나 그 밖의 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당진시청 고위공직자 A씨에 대한 공직비리와 관련 의명의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중 정계 처리 및 충남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에 당진시와 A씨는 처리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

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시안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충남도 감사 위기 2개월 이내 재심의 규정만 들어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서둘러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우려했다.

또 공직자 A씨는 그동안 해당 의명신고 관련 감사계획서와 감사 일보, 문답서, 회의록, 동의 없는 녹음파일 증거사용 관련 지침 등의 정보공개 요청과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미저도 기각됐다.

특히 해당 의명신고 관련 감사계획서와 감사 일보는 아래 부존

재(不存在) 정보라고 밝혀 4개월 동안 공무원 28명과 기업체 직원 15명 등 4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주면구식으로 조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자 A씨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정 기업인이 의명으로 제보한 사안을 감사계획이나 일보도 없이 동의 없는 녹음파일에 의존해 주면구식으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하며 “기초단체를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광역 단체의 이 같은 행정은 적극행정을 크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장기간 악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지역 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법안 개정’ 촉구 나서

개정 법안, 여야 협치로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 이하 협의회)는 이쉬움을 표하며 내달 1일 본회의에서라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5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대전세종충남지역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27일 시행을 앞둔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천광역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는 재해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이후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인

적·물적 지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준의 형사처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자들은 코로나19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부담을 차除此내기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경영 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협의회는 현재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처법 제정 목적에 맞도록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한편, 경영계의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2월 1일 중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병래 기자

‘군밤축제’ 및 ‘대한민국 알밤박람회 in 공주’ 개막

국내 밤산업 활성화 · 공주 알밤비전 제시



충부권 최대 겨울축제인 제7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와 ‘2024 대한민국 알밤박람회 in 공주’가 26일 화려하게 개막했다.

‘공주 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금강신 광공원 일원에서 28일까지 3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의 알밤박람회도 함께 열렸다.

2000년의 밤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는 2100여 농가가 매년 전국 생산량의 17%인 6530여톤의 알밤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대표 주산지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주알밤 산업의 발전과 판로 확대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드니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최원철 시장과 윤기병 광주시의회 의장, 임상섭 산림청 차장, 하현경 조직위원장(공주시 산림조합장을 비롯해 축제를 즐기려는 관람 인파가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특히, 개막식 현장에서 공주 알밤 산업의 발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도 열려 품질 좋은 공주알밤과 알밤 가공식품이 평소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됐다.

최 시장은 “올해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입산물인 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밤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며 “겨울철 대표 축제에서 온 가족과 함께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충청남도교육청
DAEJEON CHUNGCHONGNAMDO OFFICE OF EDUCATION

충남교육청의 2023년 우수 발자취

- 충남교육청 동합도서관 서비스 2023년 법정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 직업계고 전공실무능력 경진대회 전국 최고 성적 수상
- 예산전자공업고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 104회 전국체육대회 역대 최고 성과 달성
- 52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대기록 달성
-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국무총리기관 표창 수상
- 민방위업무 유공 정부포상 수상
- 을지연습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 31%

2주 연속 하락 여론조사… 국힘 36% vs 민주 35% vs 무당층 2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급등했다.

26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1월 4주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

는 5%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본 이들은 이번에도 '외교'를 1위로 꼽았다.

이는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306명 중 21%에 달한다. 2위는

'경제·민생(9%)' 이, 3위는 '국방·안보(7%)'가 차지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로는 '경

제·민생·불가'가 지목됐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 631명 중 16%가 이를 이유로 꼽았다. '김건희 여사 문제(9%)'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7%P 오르면서 '소통 미흡(11%)'에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여당 내부 갈등(2%)'도 부정 평가 이유로 등장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36%, 더불어민주당은 35%, 무당 층은 2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12월 2주 차 조사 아래 6주째

36%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6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6%, 더불어민주당 3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30%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체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정복기자

유성구의회,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5개 선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6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한행선 위원장(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의원들과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

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올해 신청한 의

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연구활동계획 승인, 정책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의결된 의원연구단체는 '유성구 복지친화도시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송재만), '미플버스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석연),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대표의원 이희운), '유성구 실버스포츠 문화연구회'(대표의원 이명숙), '유성구 탄소배출권에 대한 연구회'(대표의원 여성용) 등 5개 단체이다.

김정환기자



아산시의회 '설' 사회복지

시설에 위문품 전달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26일, 갑진년 설날을 앞두고 아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쌀, 과일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가은누리(권곡동) ▲꿈자리지역아동센터(모종동) ▲실버주간보호센터(신인동) ▲연화지역아동센터(배방읍) ▲아산시수어통역센터(탕정면)를 차례로 방문하여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영 의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아산시의회는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 청년미인드링크,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청년건강안전 TTF팀 설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당진시도청 고립·온둔 청년의 미흡으로 청년 건강,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고립·온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54만 명의 청년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나타났다. 주

제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제1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선아 의원은 "고립·온둔 청년의 미흡으로 청년 건강,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고립·온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54만 명의 청년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나타났다. 주

제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전선아 의원은 "2023년 당진시 청년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2만 4천여 명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진료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라

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아집으로 불구하고, 당

진시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에 전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

마쳤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기존에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고립·온둔 청년

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인 당진시 청년

들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

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이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사회문

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

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당진=최근수기자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2024. 1. 29. 목 13:00)는 2024년 운영한 영농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제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 김혜란, 환경숙, 김덕곤, 곽현정 / 마을 그린리더 교육 농촌환경강사단 강사, 예산농촌환경운동연합(신은미)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예산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5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운영한 홍성군 마을 그린리더 교육 사업을 통한 의견을 민관간 공유하고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 국민의 삶 바꿀 공약 제시”



▲ 대전투데이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무를 지휘할 사무총장에 판사 출신 초선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을 임명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초선의원이 여당의 사무총장에 발탁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비대위원장은 장 사무총장을 선임한 배경으로 “장 의원은 행정과 시법, 입법을 모두 경험했고 특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육공무원까지 지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면서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오신 분”이라며 “우리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 모셨다”고 말했다.

총선 국면에서 사무총장은 당 살림을 총괄할 뿐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며 선거 실무를 이끄는 핵심 요직이다.

이에 대전투데이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초선의원으로 여당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초선인 저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자체가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혁신의 동력이 되어 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초선의원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나름대로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년 연속으로 예결특위에서 예산소위로 활동하면서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자재 정의 기조에서도 충청지역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규모가 확보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보령·서천)의 경우 지난 2년간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예산안에 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확보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보령은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였다면, 앞으로는 수서 등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울러 원산도 일대 섬들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양바이오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서천은 ‘장항국가지역사업’ 에타통과로 685억 원에 달하는 국비 사업이 확정되면서 명실상부한 해양바이오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산업이 서천이 집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 코로나19로 여파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로 인해 의원님의 지역구인 보령·서천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일련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먼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73건과 45건으로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과 어업인 면세유기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지원등학조사와, 원양 해외어장지원조사 예산과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가 반영되어 어업인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보령과 서천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요?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격차문제’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격차가 의료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프라,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밤과 함께 워케이션법(관광진흥법)이 지난해(2023년 7월 18일) 통과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쉴 수 있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원산도를 비롯한 섬들과 머드축제를 기반으로 대천해수욕장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야의 정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4년 동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토론과 협의의 공간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각종 정쟁 법안들만 통과되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정부입법)은 국정과제 법안을 포함한 363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 중 통과된 것은 106건에 불과합니다. 야당의 별도집기로 대부분의 법률안이 수년째 국회에 둑여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이 민생을 위한 법안까지 가로막는 것은 비롭지 않습니까?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쟁과 정책은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현명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당부터 실천하겠습니다.

▲ 내년 총선의 이슈는 무엇이고, 패승 전략은 무엇인지요?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의 전략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 국민의 삶을 바꿀 공약 제시이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만큼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가장 효과적인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반드시 시스템공천을 이뤄낼 것이다. 공약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다른 야당들과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공약은 약속에 불과하지만 여당의 공약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민생을 쟁겨왔던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력 있는 공약들을 발굴할 것입니다.

특별히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를 우리 당의 공약으로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국민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 188건, 생활·안전 131건, 경제 125건, 교육 95건 등 총 1,05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을 향한 뜨거운 정책적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와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총선공약 개발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생·경제·행복·희망·안전을 테마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정부정책과 민생입법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보령·서천군민들과 충청도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령시, 서천군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6월, 제가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북북히 믿어주셨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집권 여당의 원내대변인에 이어 당의 살림살이와 총선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답=이정복 편집부국장·정리=김정환 기자

●정정●

사랑의 떡국 떡 전달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29일
오후 2시 시
교육청 교육
감실에서 열
리는 NH농협
'설 명절 맞이 사랑의 떡국 떡'
전달식에 참석.

청소년자연수련원 새단장 행사



박희조 동구청
장=29일 오
후 3시 30분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에
서 열리는 청
소년자연수련원
새단장 행사에
참석.

신속집행 보고회 주재



이동한 부구청
장(중구청 장
권한대행)=
29일 오후 2시
중구청 종회
의실에서 열
리는 '2025년 국비사업 발굴 및
주요 투자사업 신속집행 보고
회' 주재.

주간업무회의



서철모 서구청
장=29일 오
전 9시 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열리는 주간업
무회의 참석.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정용래 유성구
청장=29일
오후 2시 15
분 DCC컨벤
션 센터에서 서
열리는 연구
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참석.

대덕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최충규 대덕구
청장=29일
오전 11시 대
덕구의회 본
회장에 서
열리는 제273
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참
석.

오정동 가스폭발화재 피해 성금 기탁

대덕구복지관협의회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대덕구복
지관협의회(회장 서용원)로부터 오정
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4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
다.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구복지관협의
회는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용원)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형식) △대덕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미영)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성호)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자) △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정연) 등 지역 6개 복지관이 소속
돼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
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
으로 연계, 실시하고 있다.

서용원 대덕구복지관협의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
을 지역 이웃들을 돋고자 지역 복지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
게 됐다”며 “피해 이웃들에게 조금
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
다.

김태선기자

올해 산업재해 없는 도시 조성한다

市, 2024년 민간산업재해 예방계획 발표... 재해예방·안전의식 확산 주력

대전시는 정부의 '중대재해 취
약 분야기업 지원대책'과 연계한
'2024년 민간산업재해 예방계
획'을 발표하고, 산업재해 없는
도시 조성에 나선다.

2024년 민간산업재해 예방계
획은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하
고 건강한 일터를 목표로 ▲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의식 문화
확산 ▲유관기관 협업 구축 등 3
대 추진 전략·8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시는 민간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 사업장 안
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
보건지킴이를 운영한다.

소규모 민간 사업장의 안전보
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위험 요
인 제거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인
전보건 컨설팅을 하고, 안전 관련

이다.

또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을 위
해 산업재해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산재 예방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한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
획이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협업체계
를 구축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한
다.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예
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고용노동
부(이하 노동부)와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

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산
업재해 예방 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예방계획을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 대한 산
재 예방 활동 및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확
산하여 산업재해 없는 대전을 만
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시 유성구 새마을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회(회장 차정운)는 지난 25일 오전 유성구 새마을회관 회의실에
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보고 및 세입·세출 결
산(안)과 2024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 걸원이사 2명의 선출에 대한 의결과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
로 18대 회장으로 차정운 회장을 연임 선출했다. 차정운 회장은 “함께 사는 따
뜻한 세상, 지구 환경 보전과 지구촌 공동 번영을 목표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
동체 문화 조성과 새마을 운동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임 소
감을 밝혔다.



동구, 대동 달빛아트센터 관리위탁 협약 체결

하늘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 협약

대동 하늘마을 주민들의 소통
공간인 달빛아트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개최
됐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6
일 하늘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
동조합(대표 배정화)과 달빛아트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내부는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
카페, 마을 공동작업소, 공유주방,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년 9개월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
다.

달빛아트센터는 도시재생 사업
의 일환으로 대동 23~17번지 일
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
며, 총사업비 49억 원이 투입됐다.

내부는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
카페, 마을 공동작업소, 공유주방,

북카페, 다목적실, 체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대동 도
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설립돼 성
장한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마련 ▲뉴
딜사업을 마무리하고 마을 조합
의 사업 경영을 위한 공간 확보 ▲
주민여력강화사업으로 습득한 라
탄 및 기죽공예 기술, 전통 장을
사용한 식품 제조 기술 및 마을 여
행을 위한 마을해설가 육성 과정

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도시재생 사업을 마무리
하는 현시점에서 도시재생 사업
으로 성장한 마을 조합이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앞으로
도 마을 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행
정적 지원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2024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인증기준 충족시 인증현판 및 인센티브 지급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20
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공동
체 중심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는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 생활
을 솔선수범하는 아파트를 선정
하고, 인증단계를 거쳐 시상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2023년에 인증 받은 공동
주택이 2024년에 재인증을 받을

상 공동주택으로, 인증제 운영 대
상기간인 1월부터 9월까지 탄소
중립실천 활동 실적을 평가해 목
표점수를 달성하는 곳에 인증현
판(패)을 수여하고, 시상금(100만
원)과 탄소중립 인센티브(최소

100만 원 ~ 최대 900만 원을 세
대수 및 인증점수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관내 150세대 이

경우 시상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
원할 예정이다.

인증제 평가항목은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세대 기압률 ▲에
너지(전기, 가스) 사용 절감률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실적 ▲
탄소중립 홍보 및 사업 실적 등 6

개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2월
28일까지 유성구 푸른환경과에
참여신청서를 제출(이메일, 팩스)

하면 되며, 에너지 감축 실적은 3

월부터 9월까지 그 외 실적은 1월

부터 9월까지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공
고문을 참고하거나 푸른환경과
(042-611-2349)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탄소중
립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
의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인증제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의 탄소중립 활동에 모든 세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
니다”라고 말했다.

중구, 난임부부·임산부·영유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출산지원사업 확대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6개 사업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
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와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출산지원사업을 확
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
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
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
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
비 ▲선천성 난정검사 및 보정기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검사비 등 총
6개 사업으로 소득기준 제한을 전
면 폐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종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령별
차등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소

득기준을 폐지하고 연령 차등 없
이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
진통, 당뇨병 등 19개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미숙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증자
실에 입원치료 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
원·수술한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수준 제한없이 지원
한다.

또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

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난정 선
별검사의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
과 확진검사비(7만원 한도), 난정
확진받은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양측 보정기(개당 135만 원 한도)
를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종전 기준중위소득 80%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소득기
준 없이, 영유아 검진 결과가 ‘심
화평가’로 판정된 6세 미만의 건강
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중구
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중구 보
건소 건강증진과(042-288-8093)
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코레일 대전기관차승 무사업소, 설 맞이 이웃사랑 행사 시행 코레일 대전기관차승 무사업소(소장 김충건) 임직원봉사단이 디엘로한마음
봉사회(총무 최유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경연)에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
도록 먹거리 식재료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동/네

박상돈 시장, GTX-C 천안 연장 확정... '환영'

2028년 본선 구간과 동시 개통 목표



남서울대학교, 성환읍에

'사랑의 햅반' 50박스 전달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는 26일 취약계층을 위한 햅반 50박스를 천안시 성환읍(읍장 정원진)에 기부했다.

기부된 햅반은 식사를 훈자 준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족, 이동 등 저소득가정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승용 총장은 "한파로 인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이 간편하고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진 읍장은 "따뜻한 나눔을 해주신 남서울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만큼 꼭 필요한 가구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신방동 행복키움지원단·'신通방通' 지원사업 논의

2024년 1차 정기 회의 개최

천안시 신방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신동미)은 지난 25일 신방동 회의실에서 2024년 첫 번째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복키움지원단은 올해 추진할 5개 일반사업과 8개 특화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행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미 단장은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밀반찬 사업 등에 협조한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도 더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지역복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원환 신방동장은 "행복키움지원단원들의 노고와 현신으로 지역사회 위기기구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논의한 사업계획의 실행으로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택 서북구청장, 민원 현장 방문, 현장 중심 행정 펼쳐
이종택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지난 25일 성성고교 제설 장치를 점검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청장은 성성고교 제설 장치 점검, 공단 유풍 승강기 설치 현장 등을 방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확인했으며, 현장에 배석한 관계부서와 함께 대책·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상신이디피(주), 취약계층 후원금 500만 원 전달
상신이디피(주)(대표 김일부)는 26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직선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대전투데이 www.daejeontoday.com

동정

중간보고회



박상돈 천안시장
= 29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천안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
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천안시, 발달장애인

심층지원 위해 전수조사 실시

천안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조사지역으로 선정되어 오는 3월까지 동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어 "천안시는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맞이하게 됐다'며 '천안시 발전에 큰 획을 긋게 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드시무태(得時無怠), 좋은 때를 얻으면 태민한이 없이 근면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대로 때를 놓치지 않고, 70만 시민의 의지를 모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에 선정됐고 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올해 천안시는 5년간 500개 스타트업, 10년 내 2개의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해 기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분석해 보완·개선하고 신규 사업으로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창업 메카 도시 천안을 목표로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힘쓴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망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도서문화재단씨앗과

'내일의 어린이실' 협약체결

천안시 두정도서관(관장 이충미)은 26일 도서문화재단씨앗과 '내일의 어린이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일의 어린이실은 도서문화재단씨앗이 전국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간 재단장과 콘텐츠 기획을 위해 선정한 공모사업이다. 재단은 기금과 전문성을 지원하고 천안시는 내일의 어린이실 운영을 위한 콘텐츠를 투입하고 인력을 담당해 운영한다.

내일의 어린이실은 오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노후화된 어린이실을 새단장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촉진하는 콘텐츠를 기획해 독서 경험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린이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는 공간 리모델링 및 콘텐츠 기획을 위한 기금과 전문성을 지원하며 천안시에서는 '내일의 어린이실' 운영을 위한 콘텐츠 투입 및 인력을 담당하여 운영한다.

두정도서관은 시 산하 8개 공공도서관 중 2009년에 개관한 어린이특화 도서관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어린이실을 현대감각에 맞는 공간조성과 다양한 콘텐츠 운영 등 어린이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천안=이정복기자

'혁신 창업 메카도시 천안' 스타트업 육성 263억 투자유치 등 성과

170여 개 스타트업 지원 · 육성 고용창출 152명, 구매상담액 382억 원 등



천안시가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170여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 것

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지난 2년간 170여 개의 스타트업을 지원·육성한 결과 투자유치 263억 4,500만 원, 고용

창출 152명, 구매상담액 382억 원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컨설팅네트워킹, 창의인재 양성, IR 경진대회, 투자·구매 상담회 등 20여 개의 지원·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부권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그린스타트업타운'은 개관 1년 6개월 만에 입주기업 90개 사는 132명을 신규 고용하고 66억 9,5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입주기업 중 16개 사 팀스

입식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의 최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등 5년 융자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개인 1억 원, 농업법인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

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니 지금이 필요한 농가에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2월 13일까지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 접수

농업인 대상 금리 연 1% 5년 융자·최대 개인 1억 원 · 농업법인 2억 원

천안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업진흥기금은 지역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다. 지난해 269농가가 약 119억 원의 융자를 실행했다.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농식품 기공시설 설치 등 시설

자금과 농기계·종자 구입, 가축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의 최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등 5년 융자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개인 1억 원, 농업법인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

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니 지금이 필요한 농가에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6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통과



천안시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24일 제26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영재)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근거로 시청이나 소속기관 등에

통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천안시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억 원을 들여 131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약 2,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방지 시설 교체·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

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천안시청 누리집 행정·고시 공고 및 천안환경정보망을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은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원사업을



삼성전자 천안 청소년 기념관 환경개선 위해 후원금 전달
삼성전자 천안·온양캠퍼스가 26일 천안시를 방문해 청소년기념관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 6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모금했으며, 청소년 쉼터의 노후화된 환경을 친환경적인 공간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단 합동 이·취임식 개최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25일,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새롭게 임용된 대장단 합동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류일희 공주소방서장을 비롯해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과 고광철 충청남도의원, 시의원 등 외빈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논산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교육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26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자(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시 피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 화재 시 피난의 기본원칙이던 '불나면 대피먼저' 기초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의 변화를 알리고 자율안전 관리 정책을 위해 기획됐다.



아산소방서, 히트·트리우미사이버 인증서 수여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층 대회의실에서 구급대원과 펌플러스 대원 7명에게 히트·트리우미사이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 우리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지난 25일, 주택관리공단 청양읍내 2관리소와 함께 아파트 화재 피난대책 강화를 통한 주거안전 향상을 위해 우리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물군경미망인회 대전지부, 대전현충원 흰경정화활동 전물군경미망인회 대전지부(부부장 송영자) 회원들은 지난 26일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묘역 주변 청소 및 낙엽 제거 등의 「현충시설 흰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손소리복지관, 이워홀과 함께하는 손소리요리대회 진행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관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이워홀의 후원을 받아 청각장애인과 능맹인(청각+시각장애인) 50여명과 함께 손소리요리대회를 진행했다. 색다른 참여활동을 원하는 청각장애인, 능맹인들의 욕구를 반영해 개최된 이번 요리대회는 주어진 재료와 도구를 이용해 조별로 자유롭게 요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 가구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

50대·남성·임시·일용직 가장 위험...18.5% 자살계획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인 가구의 고립 정도 등을 평가해 접수를 매긴 결과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4~5명 중 1명은 이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 정도가 큰 '중·고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고속자 외)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9471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6%가 고독사 고위험군, 19.8%가 고독사 중위험군, 56.4%가 저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태·상실감 누적 ▲고립적 일상 ▲사회적 고립 ▲이동성 높은 생애 ▲돌봄과 지원

중단 등 5가지 지표로 고립 정도를 파악해 100점 만점으로 접수를 매겨 고독사 위험 정도를 평가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고립·병사 등으로 인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뜻한다.

북부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등으로 5년간 평균 8.8% 늘었다.

남성의 고독사 수는 특히 연평균 10.0% 늘어 증가세가 가파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이 기간

한 해 평균 18.5%씩이나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1인 가구는 21.2%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고독사 위험군 가운데 중·고위험군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심층조사 대상은 남성이 60.9%로 여성보다 많았고, 남성의 91.6%와 여성의 84.3%는 공공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24.6%, 60대 23.4%, 40대 16.2% 순이었다. 일시직과 일용직인 경우가 50.7%로 절반을 조금 넘었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63.0%를 차지했다. 혼자 거

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45.5%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19.7%가 지난 1년 간 입원한 경험이 있었고, 4.0%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1년간 자살계획을 한 적 있다는 응답은 18.5%였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응답한 경우도 6.4%에 달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조기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만들고 지역에서 고립의 문제가 있거나 고립에 이르기 쉬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daejeontoday.com

보령해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위한 특별점검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설 명절을 맞아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점검을 다음달 16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 전·후 단속활동을 통해 농·수산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농·수·축산물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 대상 식품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보령해경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시장 등지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소방발전위원회 창립 설명회 및 위촉식



당진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촉식

소방발전위원회 창립 설명회 및 위촉식 실시

당진소방서는 지난 25일, 3층 대회의실에서 '당진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창립 설명회 및 위촉장 수여 ▲위원 소개 및 창립 취지 안내 ▲소방발전위원회 역할 및 일반 현황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소방발전위원회는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정책의 개발, 개선 및 추진을 위해 설치되어 소방서 특성에 맞는 정책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당진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 지식이 있는 인사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촉식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발전위

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 수여 ▲위원 소개 및 창립 취지 안내 ▲소방발전위원회 역할 및 일반 현황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창립된 소방발전위원회는 추후 정기회의를 실시해 ▲당진소방서 장·단기 소방정책 개발 및 자문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추진 ▲당진소방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진=최근기자

금산소방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

제원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김상환·이윤희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들의 의용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제원면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금산소방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역할 또한 큰 힘을 되고 있다"며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금산=이정복기자

이원호 청소년 선도·보호 협동순찰 캠페인

아산경찰서(서장 이영도)는 지난 24일, 저녁 등굣방학기간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아산시 신용회동 소재 청소년교양관(관장: 이동현)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순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시 청소년친화팀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 등 유관기관 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대입고사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 3곳 적발

교육부 '선행학습 영향평가' ...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위반

지난해 대입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3개 대학이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26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별 대입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제재에 관한 특별법)'을 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양대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각 대학은 대

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혼자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해당 대학들에 교육과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한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이 수

학과 과학에서 각 2문항씩 4문항을, 한양대학교가 수학 1문항을, 건양대학교가 영어 1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했다. 국어·사회·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이들 대학은 오는 9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회 연속 위반 대학으로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대학은 없었다. 다만 지난 5년간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를 보면 카이스트 2019학년도와 2020학년에 이어 올해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양대 역시 2021학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교육지원청, 2024년 상반기 행정실장 회의 개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은 25일 단설유·초·중·고·각종·특수학교 및 성환도서관 행정실장 14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행정실장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발생 대비 안전점검 철저, 학교회계 예산적정 편성 및 집행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동절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전달했다. 이를 업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학 특강도 진행했다.



부여교육지원청, 동절기 혈액 수급 동참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은 24일 부여교육지원청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원과 함께 2024년 생명나눔 현장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부여교육지원청 직원 및 관내 유·초·중·고, 도서관 직원 등 부여 교육 기관 약 40명이 동참했다.



'2024 DDM 댄스교실 사랑나눔 콘서트' 성공리에 마쳐 '2024 D.D.M 댄스교실 사랑나눔 콘서트'가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보령 지역 소외계 청소년을 위한 기금모금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주대학교 학생과 직원이 함께하는 동계 해외봉사단 파견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접촉 중단되었던 해외봉사활동을 지난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김보아로 해외봉사단 파견을 재개했다. 동계 해외봉사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 및 주관하여 학생 및 직원 등 19명을 김보아로 파견했다.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사랑 나눔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사회복지법인 성재원(대표이사 윤여웅)은 지난 26일 대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숙)를 방문, 임직원 130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대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正因为복지센터로 전달돼 지역내 100가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산시청소년센터, 봄학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아산시청년교육문화센터(관장 배정수)에서 2024년 봄학기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창의력 발달·자기표현 프로그램과 스포츠·예술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학기별 12주 단위로 운영된다. 관내 유아·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웹툰 드로잉 외 25개 강좌 54개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봄학기의 경우 신규 청소년들의 수료를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신규반 접수로 진행되며, 여름·가을 겨울학기는 참여 청소년들의 교육 지속성을 고려하여 기존반/신규반으로 구분하여 접수를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산=리량주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24

제1차 행정실장 연수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석)은 25일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행정실장 66명을 대상으로 제1차 행정실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 날 연수에 앞서 이희빈 행정과장은 2024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올해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행정실장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본격적인 연수에서는 2024년 청렴정책 추진실적 측정,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학교회계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2024학년도 환경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운영 등 각 팀별 중요 사항을 전달했다.

이정석 교육장은 "2024년에도 논산계룡교육이 한층 높은 교육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실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소통과 공감 행복플러스+ 논산계룡교육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논산=김성구기자

대전교육청·대전시청, 내부

통제 벤치마킹 협의회 개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시청과 지난 25일 대전교육청 별관 감사장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2024년 내부통제 벤치마킹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자체internal audit 운영 활성화 방안, 자체internal audit 평가지표 및 예방 감사가 가능한 실효성이 높은 시나리오 발굴 노하우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감사기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사 관련 정보 교류, 감사 업무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 방안 공유, 기관 간 우수분야 벤치마킹, 감사 관련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대전시의 발전을 위하여 두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청렴한 생태계 조성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대전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천교육지원청-‘서천특화시장 화재’ 긴급지원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가정 학생 29명(17가구)에게 '교육복지안전망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생 29명(17가구) 학생으로 긴급생계와 학습준비물 등 학생과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생활필수, 상품권)과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학생, 보호자)을 지원한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돌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의 협력으로 긴급복지지원금, 쌀 10Kg, 100포를 기증, 서천군기독교연합회의 성금모금을 통한 장학금 전달 예정 등 각종 기관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천교육지원청 김병관 교육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실외에 빠진 학생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하여 학생들이 신속하게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이정복기자

‘교육협력 전환’ 중심 정책 협업으로 충남미래교육 실행력 강화

충남행복교육지구 중심의 정책 협업과 학생 전인적 성장 지원 협력체계 논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6일 충남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교육전문직원 중 회망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협력 전환' 중심의 정책 협업을 위한 소통과 나눔 자리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과 교육협력 전환 과제 탐색(박상욱, 공주대학교 교수) ▲행복교육지구 정책·교육협력 전환 과제 안내 ▲교육협력 전환을 위한 정책별 협업 방안

진행했으며 지난 2022년부터 5대 전환 과제(교육과정, 공간, 생태, 디지털, 교육 협력 전환)를 중심으로 충남미래교육 2030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잠재된 역량이 드러나도록 정책별로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는 등 5대 전환과제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계해 '모두의 배움과 성장' 충남행복교육지구는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으로 학습과 삶의 균형 성장 지원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학교-지역 연계 학습망·인천망 구축으로 교육 양극화 해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협력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25일 청렴 전문가 초청 자문 토론회 개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정책의 길을 찾다.’ 주제로

이번 토론회는 교직원 단체 등 회망자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해 있었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실있는 진단과 더불어, 앞으로 세종교유이 나아가야 할 청렴 정책 방향 등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 교육청의 청렴성 제고는 어떻게?"를 주제로 한 서울시립대 이정주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학교운동부 지도자, 방과후학교 강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지난해 청렴도 평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과 청렴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즉석에서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 번의 실수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정책은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금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한데 모아 '2024년 청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청렴도 최상위권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옹골찬 청양! 즐겁고 신나는 방과후학교 시동’

청양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제안서 평가 실시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은 지난 25일, 관내 15개교의 안정적이며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2024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제안서 평가'

고, 학생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한 55개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선발된 업체는 오는 3월부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순회하며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제안서 평가는 업체별로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안서 평가에서 통과된 업체의 가격 개찰을 통해 최종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진기성 교육장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청년교육문화센터(관장 배정수)에서 2024년 봄학기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창의력 발달·자기표현 프로그램과 스포츠·예술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학기별 12주 단위로 운영된다. 관내 유아·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웹툰 드로잉 외 25개 강좌 54개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봄학기의 경우 신규 청소년들의 수료를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신규반 접수로 진행되며, 여름·가을 겨울학기는 참여 청소년들의 교육 지속성을 고려하여 기존반/신규반으로 구분하여 접수를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업혁신파크 충남 유치' 길 열렸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도사업 공모 선정 총력”

충남 당진에 '기업도시 2.0'인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정부의 선도사업 공모까지 최종 통과하면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의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도 큰 힘을 될 전망이다. 도는 26일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후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 면적을 기준 기업도시 100만m²에서 50만m²로 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 혁신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들고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총액을 고리리 일원 50만m²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내용은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에 선정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역 여야 정치권 등과 공모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라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종사자 수는 3253 명에 달하며, 미래 콘텐츠 관련 유치·지원이 준비된 곳이자,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핵심지 중 한 곳"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환기자



당진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64억 원 투입

당진시는 올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와 준설(浚渫) 등을 통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4억 원을 투입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나선다.

당진시는 용·배수로를 정비해 현대화 구조물화하고, 하천을 준설해 자연재해를 예방해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을 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화된 농기계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존 농로의 확포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모종·권곡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아산시는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수변공간 조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시민에게쾌적한 하천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의영 아산시의회 의장, 아산시의회 의원, 관내 통장 및 노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생태환경의 복원을 통한 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을 목표로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다.

이어 2019년에는 온양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 12월 공사를 시작, 사업비 215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생태수로, 제방 가로수, 식재 등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됐다.

박경귀 시장은 "이번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준공으로 수질, 경관성 등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사업 추진을 통해 곡교천에서 온양천까지 시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국립한밭대 2023년도 홍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식 열려

대학 브랜드 강화를 위한 대학홍보 기여 우수부서 선정·시상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26일 대학본부에서 2023년도 홍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상식에는 국립한밭대 오용준 총장

과 황민식 기획부처장, 윤상운 기획과장, 홍보마일리지 우수부서 교직원 등 약 10 여 명이 참석했다.

'홍보마일리지'는 대학 홍보 강화를

위해 내부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린 학과·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시작되어 올해 9년째를 맞이했다.

마일리지 적립은 보도자료와 영상콘텐츠 부문으로 구분했으며, 보도자료 부문에서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3.0)이 최우수상, 경제학과·부산학과·환경학과·교과대학 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상콘텐츠 부문에서는 대학일자리 본부가 최우수상, 도서관이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국립한밭대 오용준 총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대학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신선한 방식으로 대학을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

아산시는 지난 25일, 아산시 읍봉면 산동리 242번지 일원에 추진한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준공 및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한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1개소를 포함한 연장 780m 2~4 차선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이다.

대산4사에서 공개한 5개년 투자 실적 자료에 따르면 당초 5년간 대산4사 안전·환경 분야 투자계획 금액은 8,070억 8천만 원이었으나 5년간 진행한 투자 실적은 1조 2천 990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대산4사 안전·환경 투자 합동검증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무사히 종료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위원님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다. 위원회가 종료된 뒤에도 본 위원회가 활동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기억에 남을 것이다. 우리 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박경귀 시장은 "아산·천안은 교육·문화·주거·직장·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110만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기업들이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 기업 유치 및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스마트밸리 산업 단지 진입도로 준공 이외에도 2024년 6월 탕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준공 예정으로 지속적인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업과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실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 이하 진흥원)은 지난 27일 대전충남여자중학교에서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은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1급 428명, 2급 572명, 총 1000명이 시험을 치렀다.

해당 시험은 4과목으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획득한다.

산림치유지도사는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합격자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 시스템 (<https://icensefow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현 원장은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복지 발전을 위한 미래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고품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관리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273명의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송병배기자

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군립예술단과 간담회 열려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24일 재단 회의실에서 2024년 홍성군립예술단 공연 계획과 활동에 관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신년교류의 자리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홍성군립합창단 최재훈

하고 올해 정기공연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예술단 대표는 문화예술도시 홍성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회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한 '2024년 홍성군립예술단 합동공연'의 공연 시기와 방향에 관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약속하고, 홍성군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수준높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최건환 홍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홍성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성군과 재단 홍성군립예술단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홍성군립예술단 정기공연은 ▲홍성군립오케스트라, 2024. 5. 8.(수) ▲홍성군립합창단, 2024. 5. 28.(화) ▲홍성군립국악협연단, 2024. 6. 29.(토) ▲홍성군립무용단, 2024. 11. 9.(토)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회덕농협·농협생명 월납보험료 1억원 전국 최초 달성 'NH농협생명 1억원 달성페' 수상 대전회덕농협이 '2024년 전국 최초 NH농협생명 월납보험료 1억원 달성페'를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김영훈 대전본부장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회덕농협 본점에서 김낙중 조합장에게 '2024년 전국 최초 NH농협생명 월납보험료 1억원 달성페'를 전달했다.

동정

확대간부회의



박경규 아산시장
=29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
회의'에 참석.

전달식



오성환 당진시장
=29일 오후 5시,
7층 접견실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전달식'에
참석.

발대식



가세로 태안군수
=29일 오전 10시
근흥면 주민자치
센터에서 열리는
'근흥면 노인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

가세로 태안군수 읍·면 연두방문 성료

군민과의 대화' 추진 · 25일 소원면서 마무리 · 건의사항 총 300여 건 접수



가세로 태안군수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실시한 '2024 읍·면 연두방문'이 8개 읍·면 주민 총 1330명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군에 따르면, 군수는 지난 1월 11일 남면을 시작으로 25일 소원면에 이르기까지 8일간 8개 읍면을 찾아 총 300여 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두방문은 새해를 맞아 민선8기 성과와 올 한해 군정운영 기조 및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각 읍·면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특히, 태안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과도 연계해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도모하고 각 읍·면별 경로당을 방문해 격려에 나서는 등 그동안 만남의 기회

가 적었던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두루 만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태안군의 미래 비전과 군정방향을 군민과 공유하며 '더 잘 사는 태안 건설'에 나서고자 하는

군의 의지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두방문에서는 ▲귀농귀촌인 융합정책 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속 추진 ▲해수욕장 해안테크 조성 ▲돌레길(산책로) 조성

▲항포구 환경정비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쉼터 조성 ▲마을 배수로 정비 및 경로당 보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군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 및 계획 수립에 나서고 사안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며, 즉시 추진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읍·면 방문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군정의 주요 사업을 주민 여러분께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단 한 분의 의견도 빠짐없이 세심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개시

당진시 농작물 피해최소화·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기 위해



당진시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2024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난 29일부터 운영한다.

이번에 선발된 피해방지단은 공개모집과 당진경찰서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40명을 확정했으며, 지정된 읍면동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옛돼지, 고라니, 까치, 옛비둘기 등을 포획한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농가나 시민은 시청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

동으로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을 당진시 위생매립장에 매립 처리되며, 포획보상금은 매립지 반입 내역, 매립장 내 시시티브이(CCTV) 확인, 지피에스(GPS) 포획시스템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지급한다.

한편, 2022년 4월경 익명의 민원 신고로부터 시작된 포획을 부정수급 대상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었다.

당진 당진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지피에스(GPS)를 조작해 포획포상금을 부당 수령 사실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당진시에서는 지피에스(GPS) 제도 도입 초기 시스템 오류 및 사용자 운영 미숙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지피에스(GPS)에 근거해 지급하지 않고, 자체 꼬리와 매립지 반입 내역을 토대로 포획포상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종결되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을 피해방지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은 포획 시 발생하는 총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산에 출입할 때는 신경을 쓰는 밝은 옷을 착용해 안전에 유의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전통민속마을 제자원 대상 결정

청양군은 지난 25일, 2024 전통민속마을 제3회 위원회(위원장이 종필 부군수)를 열어 2024년 지원 대상 마을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이종필 위원장을 비롯해 임호빈 청양문화원장, 최종호 청양향교 전교 천우길 이춘호 향토 사학자, 곽호제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박범 광주대학교 교수, 이경복 내포문화진흥센터장 등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마을제 시행 결과 보고 청취에 이어 신규마을 제정 심의를 진행했고, 심의 결과 예로부터 고유의 미을제를 지켜온 신규 1개소를 포함 9개소를 선정했다.

이종필 위원장은 "마을 지역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고유 민속마을 제정을 명맥을 유지하며 공동체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군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4월 26일까지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집중기간 운영

태안군이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집중기간(1. 15. ~ 4. 26.)'을 맞아 겨울철 케양 예찰 및 지도 강화 등 화상병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나무와 배나무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세균병으로, 병에 걸리면 잎·꽃·가지·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다. 현재까지만 미妨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만이 유일한 해결법이다.

나무의 케양 등에서 겨울을 보낸 세균이 봄철 개화기에 곤충이나 빗물에 의해 꽃의 암술대로 전파돼 급속도로 증식되는 특징이 있으며,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균 생육이 정지되고 나무가 휴면 상태인 겨울철에 케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율려 ▲전정 시 농작업 도구와 작업복을 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에 소독하기 ▲화상병 유사케양 증상 가지 40~70cm 아래 절단 후 악제 도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사과·배 농가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총 3회분의 방제약제를 3월 초 공급하고 관리수칙을 전파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에 종력을 기울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전정과 케양 제거가 화상병 예방의 시작"이라며 "과수농가에서는 화상병 확산 차단의 첫 단계인 농작업 제거 작업을 시작하고 개화기 전후 악제 방제 시기를 절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해당 기지를 즉시 제거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041-670-5052)에 신고해야 한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시립도서관 2023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93% 서비스 만족도 긍정 평가



당진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당진시립도서관이용자 만족도 및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시민 93%가 최근 1년간 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도서관 이용 경험 ▲서비스 만족도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진시의 공공도서관 운영이 시민의 독서문화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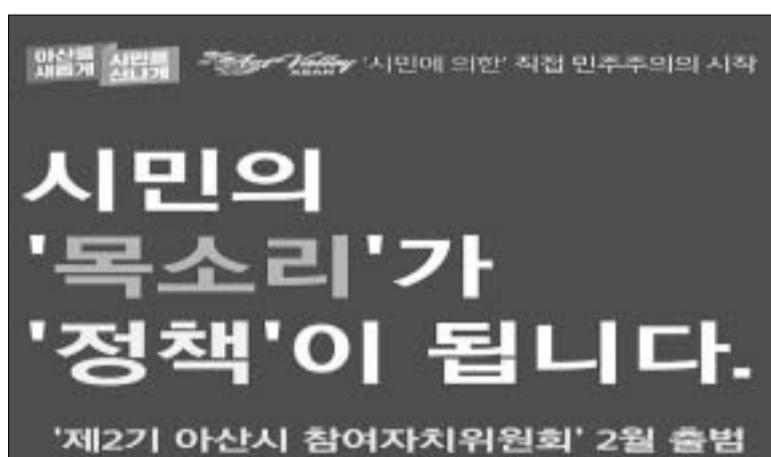
세부 항목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향후 도서관 이용의 향정도(96.3%)와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 영역에서 도서관의 의미에서 머물고 싶은 인천한 곳(95.4%)이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묻는 항목에서는 ▲교육 및 학습 기회 제공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 증진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당진시는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는 서기에 오래된 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간 도서를 최대한 많이 구입해 배치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제2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추가 모집 경쟁률 '후끈'



여자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모집한 분과별 인원은 ▲기획조정(3명) ▲체육(1명) ▲환경녹지(2명) ▲청년수산(5명) ▲복지보건(1명) ▲경제(2명) ▲도시개발(1명) ▲건설교통(3명) ▲농축산(2명) ▲행정·안전(2명) 등 총 22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세부 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61명(47%), 여성 68명(53%)으로 여성 지원자가 많았다.

여자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모집한 분과별 인원은 ▲기획조정(3명) ▲체육(1명) ▲환경녹지(2명) ▲청년수산(5명) ▲복지보건(1명) ▲경제(2명) ▲도시개발(1명) ▲건설교통(3명) ▲농축산(2명) ▲행정·안전(2명) 등 총 22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세부 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61명(47%), 여성 68명(53%)으로 여성 지원자가 많았다.

여자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모집한 분과별 인원은 ▲기획조정(3명) ▲체육(1명) ▲환경녹지(2명) ▲청년수산(5명) ▲복지보건(1명) ▲경제(2명) ▲도시개발(1명) ▲건설교통(3명) ▲농축산(2명) ▲행정·안전(2명) 등 총 22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세부 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61명(47%), 여성 68명(53%)으로 여성 지원자가 많았다.

여자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모집한 분과별 인원은 ▲기획조정(3명) ▲체육(1명) ▲환경녹지(2명) ▲청년수산(5명) ▲복지보건(1명) ▲경제(2명) ▲도시개발(1명) ▲건설교통(3명) ▲농축산(2명) ▲행정·안전(2명) 등 총 22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세부 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61명(47%), 여성 68명(53%)으로 여성 지원자가 많았다.

여자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모집한 분과별 인원은 ▲기획조정(3명) ▲체육(1명) ▲환경녹지(2명) ▲청년수산(5명) ▲복지보건(1명) ▲경제(2명) ▲도시개발(1명) ▲건설교통(3명) ▲농축산(2명) ▲행정·안전(2명) 등 총 22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세부 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61명(47%), 여성 68명(53%)으로 여성 지원자가 많았다.

여자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모집한 분과별 인원은 ▲기획조정(3명) ▲체육(1명) ▲환경녹지(2명) ▲청년수산(5명) ▲복지보건(1명) ▲경제(2명) ▲도시개발(1명) ▲건설교통(3명) ▲농축산(2명) ▲행정·안전(2명) 등 총 22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세부 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61명(47%), 여성 68명(53%)으로 여성 지원자가 많았다.

여자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모집한 분과별 인원은 ▲기획조정(3명) ▲체육(1명) ▲환경녹지(2명) ▲청년수산(5명) ▲복지보건(1명) ▲경제(2명) ▲도시개발(1명) ▲건설교통(3명) ▲농축산(2명) ▲행정·안전(2명) 등 총 22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세부 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61명(47%), 여성 68명(53%)으로 여성 지원자가 많았다.

여자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모집한 분과별 인원은 ▲기획조정(3명) ▲체육(1명) ▲환경녹지(2명) ▲청년수산(5명) ▲복지보건(1명) ▲경제(2명) ▲도시개발(1명) ▲건설교통(3명) ▲농축산(2명) ▲행정·안전(2명) 등 총 22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세부 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61명(47%), 여성 68명(53%)으로 여성 지원자가 많았다.

여자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모집한 분과별 인원은 ▲기획조정(3명) ▲체육(1명) ▲환경녹지(2명) ▲청년수산(5명) ▲복지보건(1명) ▲경제(2명) ▲도시개발(1명) ▲건설교통(3명) ▲농축산(2명) ▲행정·안전(2명) 등 총 22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세부 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61명(47%), 여성 6

우리/동/네

SIB 3년간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가다



논산파랑새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료

“꿈을 그리고 희망을 키우고 사랑을 노래하다”

논산시(시장 백성현)은 논산파랑새합창단이 지난 25일 논산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논산파랑새합창단은 2017년 8월에 창단하여, 관내 3개 양육시설의 아동 24명이 음악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매주 1회 이상 연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여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논산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꿈을 그리고 희망을 키우고 사랑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파랑새합창단의 노래는 물론, 클래식기타와 하모니카 앙상블, 마림바연주와의 협연이 더해져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다.

특히, 파랑새합창단은 아동권리 홍보송인 ‘우리는 모두 소중해’를 부르며, 아동의 권리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곡은 논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한 아동권리 홍보송으로, 논산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노력 돋보여

부여군, 농업정책·소관 보조사업 대체 절차 간소화 등 추진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농업보조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 보조사업 절차의 불편 시험을 적극적으로 벌굴·개선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 24건 보조사업(총사업비 64억)에 대해 일괄 통합 접수하고,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읍면 자체 승인하여 농업인들이 적기에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업재해확인서, 재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 등 행정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신청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청산서류도 기존 7~9종에서 4~6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이울리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연례 반복적이고 다수가 신청하는 사업은 3년을 주기로 접수하여 충북지원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년 반복 신청으로 인한 농가의 피로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신청 시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해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집중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사)한국나눔연맹 계룡시에 물품 기탁

쌀·라면·김치 등 7000만원 상당 후원 물품 기탁

계룡시는 지난 26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물품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쌀(10kg) 1000포, 라면 40개입 500박스, 김치 10kg 500박스로 시가 7000만원 상당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면·동주민센터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나눔연맹 강소연 부장은 “겨울철 한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이불 물품 전달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의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나눔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읍우 시장은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신 (사)한국나눔연맹에 감사드리며, 지원해 주신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김성구기자

부여군, 전국 최초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2021년 7월부터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치매 유병률 증가라는 사회문제 개선을 위해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으나 치매는 아닌 상태)를 대상으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다.

여기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이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목표 달성을 여부를 측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사업이다. 과거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장애 아동 인지·사회성 개선 SIB, 경기도의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SIB에 이어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SIB를 추진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자의 평균 치매 이환율은 15%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동안(2021.6~2024.6) 사업참여자 270

명의 기억훈련 제공, 담당 매니저 방문 및 AI 스피커 활용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아직 사업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223명 참여하여 치매 이환율 3.28%를 기록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과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현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가족 간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치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에 참여한 운영기관은 팬임파트코리아, 수행기관은 주마음과 행복키넥트, 평가기관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백병원)으로 향후 12월 최종 평가를 통해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경우 투자금과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여=김성구기자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온정 손길이 어져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피해복구 성금 3억원을 지난 25일 서천군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화재 피해로 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물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도 최대 1.5% 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 및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며, 개인 고객에게는 개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포인트)까지 감면하는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웅 군수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웅 군수는 “화재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 상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긴급생계 대책 마련 및 피해복구에 주력하고, 서천특화시장의 신축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의한 상황이며, 행안부에서도 점포 227개가 전소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의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웅 군수는 “화재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 상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긴급생계 대책 마련 및 피해복구에 주력하고, 서천특화시장의 신축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에도 시장 재건축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할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군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군문화를 소재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도 개최 예정인 2024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개최를 통해 우리 국군의 위상 및 계룡시의 성장 잠재력과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시장은 “육·해·공 3군의 본부가 소재한 계룡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국방수도로서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당면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군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및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과의 협력 및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육·해·공 3군의 본부가 소재한 계룡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국방수도로서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당면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군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및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과의 협력 및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향상, 청년농 육성을 위한 선진화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의 스마트팜 면적과 농가 수는 충남 대비 각각 40%와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품목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부여형 스마트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성현 군수는 “한미한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을 사령할 것이다”라며 “더 많은 이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관심을 살피며 보여주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미소를 더해 주었다.”

이날 특히 논산경찰서, 논산세무서, 논산소방서 등 민생에 가까운 관공서의 적극적 참여는 이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살피며 보여주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미소를 더해 주었다.

백성현 군수는 “한미한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을 사령할 것이다”라며 “더 많은 이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관심을 살피며 보여주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미소를 더해 주었다.”

한편, 강경대통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등 지역 내 곳곳의 전통시장에서도 장보기 행사가 열렸으며,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했을에도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더욱 뜨뜻한 장보기 행사가 되었

다고 시장 평가했다.

이응우 계룡시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간담 나눠

민·관·군 상생 역점사업 · 軍문화축제 협조 등 포괄적 협력 요청



이응우 계룡시장은 26일 오후 모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포괄적인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고 밝혔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신년인사와 함께 계룡시와 계룡대 간 적극적인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군관련 역점사업과 2024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군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군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시정과제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K-방산 광학센서 소재부품 시험인증기관 설치 기반 구축 ▲신도안 항토문화 공원 및 태조 100년 기념 조성 ▲대한민국 최고의 군문화 메카 조성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및 구(舊) 신도역 부

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향상, 청년농 육성을 위한 선진화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의 스마트팜 면적과 농가 수는 충남 대비 각각 40%와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품목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부여형 스마트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은아 부군수는 “4계절 연중 생산하고 있는 우듬지팜의 매출액이 연간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스마트팜 농업 법인으로 앞서가는 우듬지팜의 사례를 참고해, 농식품부 각종 사업

부여군 한 훈 농식품부 차관 스마트팜 현장 방문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자체 개발 고용인력 관리시스템 확인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5일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관내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을 방문하여 스마트팜 생산(가공시설) 현황과 시설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논의했다.

특히,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오전 9시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홍은아 부여군수는 우듬지팜에서 자체 개발한 고용인력 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정책 실현 방안을

접근하는 ▲소방설비 정상 작동 및 완강기 구비 여부 ▲방화문 개방 및 피난계단 물건 적치 행위 ▲경비실 등 공용공간 화재안전 및 대피 관련 국민행동요령 비치 여부 ▲피난안전 매뉴얼 숙지 여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계절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요양원, 요양병원, 디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계룡=김성구기자

노후 공동주택 화재 합동 안전점검

계룡시, 소방설비 정상 작동… 완강기 구비 여부 등 꼼꼼히 살펴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25일 화재 취약시설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소방설비 정상 작동 및 완강기 구비 여부 ▲방화문 개방 및 피난계단 물건 적치 행위 ▲경비실 등 공용공간 화재안전 및 대피 관련 국민행동요령 비치 여부 ▲피난안전 매뉴얼 숙지 여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계절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요양원, 요양병원, 디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계룡=김성구기자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온정 손길이 어져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피해복구 성금 3억원을 지난 25일 서천군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화재 피해로 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충남대, 글로컬대학30 '통합기반 혁신' 추진

'글로컬대학30 기획위원회' 통해 혁신 방향 논의해 와

정부가 2차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충남대학교가 2024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통합기반 혁신'으로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충남대는 1월 25일 오후 3시, 대학본부별관 CNU홀에서 '2024년 제2차 학무회의'를 열고 2024년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모를 위한 혁신 방향을 심의한 결과·'통합기반 혁신'으로 사업에 응모할 것을 결정했다.

충남대는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한발대와의 통합기반 혁신으로 공모할 방침이다. 또, 2024년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계획서 제출 일정에 맞춰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남대는 지난 1월 18일 진행된 제2차 학무회의에서 단과대학 학장단은 2차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발대와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충남대는 지난해 1차년도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탈락 이후 '글로컬대학30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1차년도 사업분석과 2차년도 혁신기획서 작성을 위한 학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한발대와의 통합을 통한 혁신, 무전공(무학과) 중심의 교육 혁신,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원·대학 간 담당 허물기,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오픈 캠퍼스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총장은 1월 26일 '2024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 제목의 담화문을 내고 "2024년도 글로컬대학30에 반드시 선정되어 기 위하여, 다시 한번 통합기반 혁신전략을 활용한 사업 준비를 하겠다"며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 계획서 제출 일정에 맞춰 대학 구성원의 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총장은 "1차년도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10개 대학의 혁신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요구하는 혁신의 국가거점국립대학과가 중심이 된 대학 간 통합 그리고 1도 1대학 비전 달성이이라는 것이 1차년도

사업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시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대학 간 통합이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충남대·한밭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19일 대구를 시작으로 '2024년 글로컬대학지정계획(시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2차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본격화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4년 글로컬대학30 지정계획 발표 및 공고는 2월 1일,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접수는 3월 22일까지, 예비지정 결과 발표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충남도, 연휴 맞아 5대 분야 대응체계 '가동'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설 연휴 종합대책 14개 과제 추진

충남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민과 고향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는 경제·재난·복지·의료·환경 등 5개 분야 14개 종전과제를 마련했다.

도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연휴 기간 각종 불편 신고는 '120충남콜센터'를 통해 받는다.

경제 분야 대책으로는 먼저 불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가격표 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설 명절에 밭맞춰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수산물 구입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예정이며, '농사

랑' 쇼핑몰과 직거래 장터 등을 활용해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인 농·축·수산물 성수품 20개 품목 최대 840억 원 할인쿠폰 지원 방안도 도민에게 흥보할 계획이다.

업체당 1억 원 이내 총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 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

재해·재난 분야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도내 주요 디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다.

도로일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기스·난방·상하수도·교통 안전 등 도민 생활 밀집 부문을 특별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며, 다음달 8일부터 13일까지는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도내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소방서별 기동 순찰을 하는 등 화재 대응에 총

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긴급 협동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 복지시설 위문과 온기 나눔 범도민 캠페인을 펼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 각종 소외 계층에 대한 명절 지원 대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 등 화재 안전 점검과 동절기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한 난방비 등도 지원한다.

응급 및 방역 분야는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도와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비상 진료 기관·약국도 운영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의료 기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환자 발생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는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터미널과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도 집

중 점검한다.

김정환기자



당진시노인복지관

2024년 사회교육사업 개강

당진시노인복지관은 29일부터 만 60세 이상 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2024년 1학기 사회교육 41개 프로그램을 접수한다.

통기타·생활체조, 실버트롯댄스, 컴퓨터·스마트폰 입문·고급반 등 총 41개 프로그램으로 900여 명을 대상에게 수강신청해 지식습득 및 정서 향양은 물론 자아실현과 자기 개발 학습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1학기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입문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세분화해 참여자별 나이도 고려한 수준별 배움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교육사업 프로그램 신청 및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노인복지관 홈페이지, 키카오톡채널(Ch), 사무실(041-360-31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최근기자



선문대, 고려인 청소년의 꿈과 진로 지원 위한 세미나

국내 고려인 청소년 꿈과 진로 이야기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는 25일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고려인 청소년의 꿈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고려인 청소년 꿈과 진로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려인은 러시아를 포함해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 국가 연합의 국가들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한다. 현재 러시아를 포함해 주로 중앙아시아 5개국 등에 거주하고 있다.

선문대 글로컬문화교육센터(센터장 남부현)와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소장 김경학)이 공동 주체한 이번 포럼은 국내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생활 등에서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1부는 선문대 남부현 센터장의 진행으로 국내 고려인 밀집 지역인 안산, 아산, 광주, 경주 지역 초·중·고 학교 교사들의 고려인 청소년 학교생활과 한국어 교육에 관한 현장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내용 중에는 학교 교육 정책 개선과 교사들의 교육적 대응 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2부는 전남대 강영신 교수의 사회로 전국에서 고려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 대표와 단체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안산 고려인문화센터, 인성 로템나루 국제대학원, 서울국제학원, 대한고려인협회 등은 고려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업과 지자체 역할에 대한 현실적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밭대 최고경영자과정 제42기 원우회, 남다른 모교 사랑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정준)는 26일 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42기 원우회가 대학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향 모색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25일,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의 갖고 올해 평생 교육진흥 사업 논의와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산시설공단, 임직원 급여 끝전 모아 후원 물품 전달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따뜻한 둥지(원장 김윤경)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주·남, 희망성금 2천만 원 전달 행복도시 건설로 생활난민을 내준 원주민들로 구성된 세종시주민생계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양남이 희망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원쪽부터) 임재덕 상무, 임현경 양남대표, 이은형 조합장, 최민호 시장, 박상혁 세종도금회장, 김윤경 세종도금회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공주박물관, 사용자 중심으로 누리집 전면 개편

반응형 웹으로 스마트 기기 접근성 강화

<웅진백제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공개 서비스 시작



국립공주박물관(관장 이정근)이 새롭게 개편한 누리집을 선보였다.

새 누리집은 반응형 웹사이트로 사용자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SNS 간편 로그인 기능을 도입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교육, 문화행사 등이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박물관(VR)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해 상설전시실을 비롯한 박물관의 시설, 전경을 360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문화행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해 검색기

능을 강화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누리집과 연계해 <웅진백제문화 아카이브>도 공개한다.

박물관 소장 무령왕릉 및 웅진백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며, 무령왕릉 출토품 고화질 사진(소장자료 검색)을 시작으로 점차 공개범위를 확장해 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박물관 발간 도서(35종)는 오는 2월 7일부터 전자책(ebook)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누리집 개편을 기념해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누리집 새단장 이벤트를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주박물관 누리집(<http://gong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구, 우명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경로당 어르신 관절운동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우명보건진료소에서 서구체육회 강사와 협업으로 경로당 회원들의 관절 강화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명보건진료소는 고령화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15일부터 주민 접근성이 유리한 경로당 7개소를 주 1회씩 방문하는 운동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겨울철 위축되기 쉬운 경로당 어르신들의 관절 균육을 강화하고 운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주기적인 건강 상담을 통해 주민의 만성 질환을 관리하며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로당별 참여 인원은 10명 내외로, 평균 3~4명으로 경로당을 시작으로 평촌1, 2 경로당, 용사촌 경로당, 우명2동 경로당, 용사촌 경로당, 오동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한 결과, 운동의 효과와 필요성을 느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었다.

서철모 청장은 "서구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올 설 자금 평균 1940만원 부족” 작년 이어 고금리 자금조달 최대 애로요인

중기중앙회, 中企 811개사 대상 ‘2024년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이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 389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94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은 지난 8월부터 16일까지 8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6%로 '원활하다'는 응답(17.3%)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6.1%를 차지했다.

자금사정 고민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6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뛰어아 ▲원·부자재 가격 상승(52.3%) ▲인건비 상승(32.4%) ▲판매대금 회수 지연(10.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작년 설 대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원활하다'라는 응답은 195%를 차지했고, '곤란하다'라는 응답(11.6%)보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68.9%)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은행에서 '높은 대출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이종수 선생 예술혼이 담긴 세계적 건축물로 건립 기대”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6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이종수 미술관 건립 기획디자인 발표회’에 참석해 이종수 선생의 유족을 비롯한 공공건축가와 문화예술가 등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산림청-희망브릿지, 산림생태복원 위해 맞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승필호)와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의 생물다양성과 생태복원을 통해 건강하고 푸른 숲을 미래세대에 보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축적량 확대 등 지속 가능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 공주시지부, 설맞이 ‘떡국떡 100상자’ 행사 NH농협 공주시지부(지부장 황광환)는 지난 26일, 설 명절을 맞아 150만원 상당의 떡국떡 100박스(200kg)를 공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행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태산전자 김필영 대표, 호서대에 발전기금 1억원 쾌척 주태산전자 김필영 대표가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발전기금 1억 원을 호서대학교에 전달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은 태산전자 김필영 대표와 호서대 강준모 대외 협력부총장, 이문범 대외협력처장, 김시국 소방방재학과 교수 등 참석한 가운데 호서대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진행됐다.



대전동행로터리클럽, 사랑의 연탄 지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27일 대전동행로터리클럽(회장 김영수)에서 연탄 3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연탄은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에 전달되었다.



건협, 2024 신규 정규직원 교육 수료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22일~24일까지 천안 소노밸리조트에서 2024년도 신규 정규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 DSC 리빙랩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건양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우수상’ 수상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조용석)가 2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가 주관/주최하는 2023 DSC 지역리빙랩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상’(DSC 지역 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 상)을 수상했다.

지역 리빙랩 사업은 지역내 지역주민과 혁신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함께 참여하여 지역 혁신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역 기반 맞춤형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번에 우수상을 받은 의료IT 공학교육과 김민주 학생 외 팀원 5명은 키오스크 교육 콘텐츠의 획일화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교육용 키오스크 <오키스크>를 개발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좋

었다.

팀장 김민주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지역 문제를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처음 참여한 리빙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팀을 지도한 건양대 공학교육 혁신센터장 조용석 교수는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예산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설맞이 원산지표시 홍보 협동 캠페인

예산군은 지난 25일 예산 상설 시장에서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충남지원 예산 사무소, 소비자 교육 중앙회와 함께 올바른 농축 수산물 표시 협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예산 상설 시장과 삼교 곱창 특화거리가 조성되고 찾이오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머거리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해진 가운데 농축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 강화의 일환으로

로 민관이 협동 추진한 것이다.

이날 군은 예산(상설)시장과 국밥거리 등 인근 상가에 대해 ▲원산지 표시 ▲농축 수산물 식품 취급 위생 당부 ▲부정 유통 행위 차단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을 계도했으며, 전단지와 홍보물품(햇팩 등)을 배포하고 원산지 표시 현장 상담도 병행해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산=박제화기자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검색

미래엔 서해에너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후원금 쾌척

의학연구 발전을 위한 후원금 1억 원 전달



미래엔그룹 CMC 생명존중기금 전달식

미래엔 불우한우롭기 기금, 순환기금과 발전기금

Miraeen 서해에너지

2024년 1월 25일(목)

기부금증명서

(주)미래엔서해에너지

순환기금과 발전기금

15억 원(￦150,000,000)

2024년 1월 25일

미래엔 서해에너지 대표와 이 회성 가톨릭대학교 의부총장 겸 의료원장, 추은호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전달된 후원금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인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발전기

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미래엔 서해에너지(‘Safety & Happy Together’)라는 사회공헌 가치를 수립해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 협력 캠페인, 장학재단 및 교육기관 발전기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박영수 대표는 “후원금이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의학연구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는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주) 미래엔의 소이 환아 치료를 위한 기금 1억 원도 함께 전달되며 그룹 차원의 나눔 활동이 진행됐다.

당진=최근수기자

이소희 변호사 ‘걷지 못해도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 출간



이소희 <사진> 변호사 책 ‘걷지 못해도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예문출판)

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되기까지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에서 이 변호사는 15살 의료

사고 이후 3년간의 병원 생활로

인한 공백과 장애를 극복하고 겨

정고시부터 대입, 로스쿨, 변호사

시험 그리고 공기업 시험까지 한

번의 낙방 없이 통과한 그의 기적 같은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시련의 극복과 도전의 이야기는 물론 그 과정에서 키워낸 멘탈 강화 전략, 성장을 위한 습관 및 공부 비결 또한 자세히 담고 있다.

이정복기자

조폐공사, 예술형 주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세미나

국내 도입 시국부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 가능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장훈, www.komsco.com)는 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예술형 주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연 구원 유승기 박사와 국내 최대 기념주화 유통업체 풍산화동양행 이제철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성장

훈 조폐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과 전문가 등이 함께 자리

했다.

예술형 주화(Bullion coin)란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서, 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화폐이다. 국가적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매년 발행한다는 점과 판매가격이 귀금속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준

의 기념주화와 차이가 있다.

이번 세미나 발제자인 산업연

구원 유승기 박사는 해외 예술형 주화 역사와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면서, 예술형 주화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수출 활성화 등 문화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음 발제자인 풍산화동양행 이제철 대표는 예술형 주화 해외 시장 현황과 국가 상징물을 소재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홍보 역할을 볼 특히 하는 주요국의 예술형 주화를 소개했다.

성장훈 사장은 “예술형 주화는 국가 상징물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화폐의 기획에서부터 제조,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문화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발달할 경제적·문화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승병배기자

김우영작가의
우주백이야기

김우영 작가

(문학박사·한국문화재외교류협회 상임대표)

상그려운 9월 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9월 18일(월). 건강이 안 좋은 아내 '사랑이'를 고국에 훔자 두고 떠나오는 오는 밤길이 무거웠다. 그려나어찌하랴 21세기 지구촌 나그네 내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한국 어 문학박사의 숙명 같은 국위선양의 길. 지난 2023년 9월 18일(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떠나왔다.

외국어대 국위선양 자리매김

푸르고 너른 서해바다를 박차고 허공에 오른 아시아나 비행기는 상공 17,000피트를 유지하며 시속 700km로 날아 7시간 만에 중앙아시아 대륙 우즈베키스탄 국제공항 타슈켄트 공항에 밤 8시 도착했다. 마침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장 '나자로바 사흘로'를 대신하여 관계자 '알리세르'가 승용차로 미중을 나왔다. 돌아가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으나.

바닥이 고르지 못하여 터널거리의 유크로으로 알리세르는 까이만 어둠을 뚫고 달렸다. 무려 4시간을 달리는 사이에 도로에 기도들이 없었다. 지난해 여름 6월~7월 안디잔을 방문 때는 무려 8시간을 달렸으나 그에 비하여는 그나마 깊다면 위인을 해야 했다. 한국에 취업자 몇 년 다녀와 한국말을 잘하며 운전하는 알리세르에 미안했지만 비행기 7시간에 다시 4시간 정도 승용차로 가는 길이 피곤하여 좋았다. 이곳 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짐을 가득 싣고 도로를 오고 있었으나. 마치 지난 2019년~2020년 한

국해외봉사단 코이카 파견 아프리카 태자니아 체류시 현지언어 교육을 위하여 수도 다르에스살레마를 모로고로시를 오가던 생각이 들었다. 깨이만 어둠을 뚫고 달리던 알리세르 승용차를 타고 즐거운 깨미를 반복하는 사이에 알리세르가 말한다.

"김 박사님 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느라 면 길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알리세르가 4시간동안 차를 운전하느라 수고했어요. 지금이 새벽 2시인데 배고프니 어디 가서 뭐 좀 먹어야요."

"그럴까요. 저도 배가 고프네요."

"그럼요. 같이 가요. 뭐 좀 먹고요."

돌이는 가까운 레스토랑에 가서 갈증에 보드카 반주와 식사를 하며 공항까지 나와 고마움에 감사를 나누었다. 식사 후 기숙사로 들어왔다. 비행기 7시간 승용차 4시간 11시간의 로정(路程)에 지쳐 먼 나라 중앙아시아 대륙의 새벽녘 창밖 여명을 느끼며 잠나리로 빠져 들어갔다.

▶이름모를 새기 날아와 놀자네!
오늘은 9월 24일 일요일. 한국을 떠나와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름모를 새기 기숙사 청기에 날아와 지저귄다. 그래서 밤에 군것질용으로 사온 논(Non, 뺨)을 창가에 놓았더니 몇 마리가 고대로 날아와 부리로 쪘아 먹는다.

"그래 너희도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이 낯선 지구촌 나그네가 외로운 줄 알고 놀자 하는구나. 앞으로 나는 뺨 안먹고 너희들 줄터니 자주 놀려오너라. 고맙다 친구해주어서 새야. 이를없는 우즈베키스탄 너희와 인연 곱게 아로새기마! 낯선 이곳에서 유일하게 한국말을 주고 받는 이름모를 새야!"

이름다운 정조와 생활을 노래한 순수서정성으로 노래한 금아(琴兒) 피천득시인은 인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사설

명암 엇갈리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실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내년으로 디자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확대되고 있다. 교실에서 태블릿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목에 따라서 성적 상승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수학과 물리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늘면 수학성적이 오히려 3~4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수학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 교육백서'의 내용으로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백서에 따르면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은 하루 2.2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학생들의 평균보다 12분이 더 길다. 게다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말 학습 및 여가 활동 시간에도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어 결국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비롯 디지털 기반 수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겠지만 학습능력과 효과를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SNS나 앱의 알림을 꺼두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수시로 이를 확인하느라 공부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학업 태도와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호기심이 많고 자체력이 부족한 청소년 시기이다보니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폰의 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심지어 디지털 기기가 근처에 없으면 조조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점수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7점이 낮았다는 사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두운 면이다. 물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은 과목에 따라 편차가 있고 이번 조사가 수학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수업이 대세가 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 여사 명품 백문제, 윤 대통령 입장 표명 빠를수록 좋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 대응을 둘러싼 윤문서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동행으로 수습 모드에 들어갔다. 총돌이 장기화되며 총선은 펼쳐지는 데에 공감했기 때문에 풀이된다.

그러나 지금의 수습은 미봉(縫合)일 뿐이다. 명품 백 수수 논란이란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 가넘는다. 사과나 유감 표명, 그게 지나친 요구라면 명품 백 수수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어떤 형태로든 윤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명품 백 수수 논란의 본질은 기획 합정 몰카이다. 북한을 수차례 드나든 반정부 성향 목사가 김 여사 부친과의 인연을 내세워 김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는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것은 김 여사를 '디스해' 여권 전체에 타격을 입히려는 비열하고 치졸한 기획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론이 이렇게 흘

려가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하고 어울릴 것이다.

정치 공작이라는 본질은 사리지고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사실만 문제로 부각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여론이 계속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한' 갈등 해소 출구 전략으로 여권 일각에서 김 여사를 '미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 경율 비대위원의 사퇴를 거론하고 있지만 김 위원이 물려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김 위원의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김 여사 문제가 바로 지금 여권의 고름이다. 그대로 두면 더 큰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홍성군,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돋움

신경리 산학2공원에 전면 개장

반려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할 만큼 반려동물을 기족처럼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이에 발맞춰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29일 홍북읍 신경리 산학2공원(홍북읍 신경리 1631)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약 4295평(1,420m²) 규모로 운동장, 울타리, 놀이기구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시설로 구성됐다.

안내소 및 화장실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놀이터는 연중무휴 무료로 상시 개방되지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폭우·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서 휴장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및 광경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용 가능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 가능하다.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체고 40cm 이상은 대형견, 40cm 미만은 중·소형견으로 공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있으며,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보호자가 직접 배변 봉투를 지참하고 배변을 처리해야 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홍성군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e@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요청.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천이 답이다!



김오수 아산소방서장

겨울철 주택 화재로 인한 비보가 연일 들리고 있다. 온열 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은 주택 화재의 위험과 더불어 화재 발생률도 증가하는 시기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사망자는 1천 45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3천 169명)의 45.8%를 차지한다. 이는 주택화재가 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세대별·층별·소화기 1개 이상, 구획별 설마다 주택화재경보기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

상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다. 주택은 우리 삶의 터전으로 주택을 화재로 소실하는 것은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있고, 재산상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특히 주택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예방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환경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될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는 나,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 간의 상호 안전을 증진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한 삶의 기반이 될 것이다.

안전한 삶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지킨다는 것은 내 권리를 지키고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는 만큼 보인다. 이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곧 나,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될 것이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른신문

| | | | | | |
|--------|--------------|--------|--------------|------|--------------|
| 발행·편집인 | 김현정 | 회장 | 김성구 | 논설위원 | 김우영·김성식·김종복 |
| 전화안내 | 042)538-3030 | 기사제보 | 042)538-1601 | 팩스번호 | 042)538-2211 |
| 구독배달안내 |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 042)538-1603 | 구독료 | 월1만 5000원 |

등록번호 : 대전기 00017

인쇄처 : 동일일보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대전투데이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해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Daesang CLEAN Company Ltd.
대성리클린 대표이사 김경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주) 제이콘
JCON

충청환경에너지(주)

주식회사 레일웍스
CONSTRUCTION & MAINTENANCE

INSGREEN 주식회사 인스그린

More than Chemistry
 철원제약

Hanwha

Toshiba

Daesang CLEAN Company Ltd.
대성리클린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성개발산업

에이치디포장건설주식회사